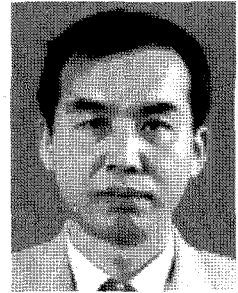


TBT 중앙사무국 1주년 보고서(1)



송 국 현 연구관
기술표준원 기술규제대응과

I. WTO/TBT 활동

1.1 WTO/TBT 협정 대응

1.1.1 WTO/TBT 통보문의 보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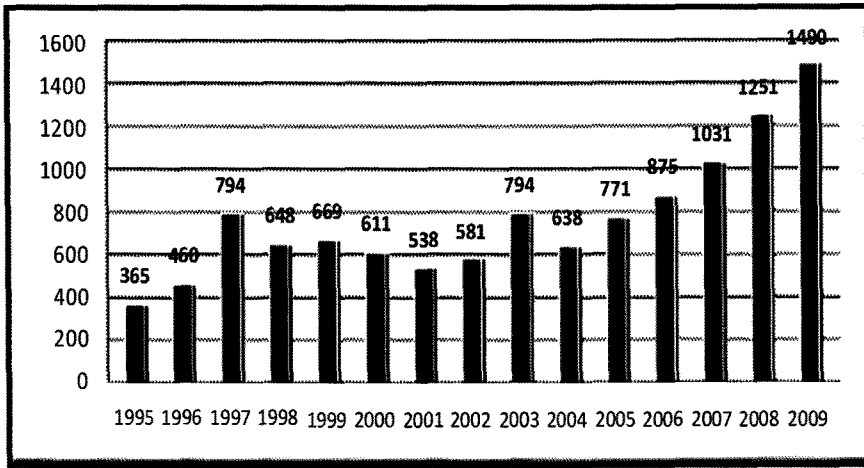
WTO/TBT 위원회가 회원국들로부터 기술규제의 제정/개정 정보를 받아 발표하는 TBT 통보문의 수가 작년 최근 몇년간 계속 증가추세에 있다. 특히 2009년 들어서 전년도에 비하여 TBT 통보문의 수가 약 19% 증가하였으며(2009.12월말 통계 기준), 연도별 TBT 통보문의 수는 아래 그림과 같다. 또한 TBT 중앙사무국에서는 '08.9.27일부터 TBT 포털사이트(<http://knowitx.kr>)를 개설하여 산업계, 관련 이해당사자 등에게 자동경보시스템을 통하여 해외기술규제의 내용을 신속하게 배포하고 있다.



WTO/TBT 협정의 원활한 운영 또는 협정 목적의 이행에 관계되는 제반사항에 관하여 협의하기 위해 각 회원국의 대표로 구성된 TBT 위원회를 설치하고, 스위스 제네바에 위치한 WTO 본부에서 매년 3회에 걸쳐 TBT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이는 수출대상국의 불필요한 기술장벽에 대하여 공식석상에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무역기술장벽을 해소할 수 있는 중요한 장(場)이라고 불

수 있다. 또한 WTO/TBT 위원회는 우리나라에서 제·개정하는 기술규정에 대해 상대국들을 이해시키고 필요한 경우, 개선할 사항들을 파악하는 장으로도 활용될 수 있다.

〈연도별 TBT 통보문수〉



1.1.2 특정무역현안

WTO의 기술규제 관련한 논의는 매년 3회 개최되는 TBT위원회 회의에서 이루어지며, 회의의 주요 안건인 특정무역현안 (specific trade concerns)으로는 WTO 회원국의 신규 기술규제 및 기존의 기술 규제, 또는 미통보된 규제이지만 무역에 장벽이 된다고 여겨지는 규제 등이 있다. 최근 들어 특정무역현안의 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근간 WTO/TBT 위원회에 제기된 특정무역현안의 수는 아래 표와 같다.

〈최근 WTO/TBT 위원회의 특정무역현안〉

년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현안(건)	31	28	37	45	59	74

1.1.3 개도국 지원

WTO 협정을 이행함에 있어 개도국의 기술적 어려움이 제기되기 시작하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한 각 회원국의 자발적인 지원 필요성도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우리나라는 APEC 통상장관회의(06. 7,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 및 WTO 각료회의에서 수석대표 기조연설을 통해 개도국의 WTO 협정 이행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개도국공무원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할 것임을 공약하면서 대개도국 지원 사업을 이행하기 시작했으며, WTO에서의 우리나라의 위상을 제고하고 장기적인안목에서 주요 개도국과의 통상협력 관계를 개선시키기 위하여 개도국에 대한 지원활동을 권장하고 있다.



이의 연속선상에서 공산품분야 TBT 실무를 총괄하는 기술표준원은 2002년 「아세안 국가 대상 표준 및 적합성평가시스템 구축교육 프로그램」

을 시작으로 현재 중앙아시아, 아프리카까지 확대하여 TBT 질의처 운영경험을 전파하고 있다. 이외에도 개별국의 요청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특히, 베트남은 지난 2006년 고위공무원들의 TBT 교육을 시작으로 매년 실무자의 TBT 질의처 운영교육을 요청해오고 있으며 올해는 특히 덴마크 정부에서 지원하는 DANIDA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아국에 교육지원을 요청해오에 따라 베트남 교육생을 대상으로 5일 과정의 “TBT 질의처 운영에 관한 연수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우리의 TBT 질의처 운영경험을 전달하였다.

1.2 공식질의처 운영현황

TBT 통보문의 수가 증가하고 우리나라가 WTO에 통보한 기술규제가 늘어남에 따라 해외에서 접수되는 질의 또한 늘어가고 있다. 우리나라의 기술규제에 대한 일상적인 상세자료요청이 아닌 아국의 기술기준의 세부적인 내용을 담은 구체적인 질의가 다국적 기업 등 해외 산업계로부터 빈발해지고 있다.

〈WTO/TBT 질의처 운영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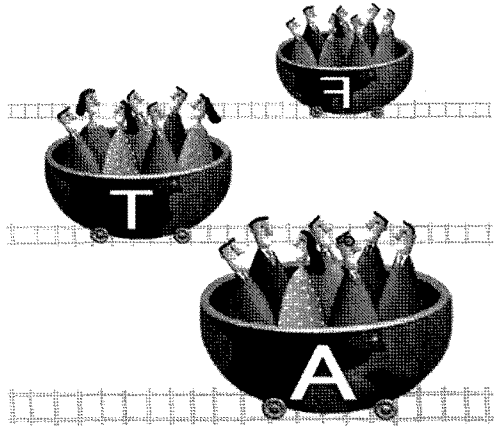
(단위:건)

내용/활동	연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TBT 통보문 접수 및 보급		538	581	794	638	771	875	1,031	1,251	1,490
국내기술기준 WTO 통보		27	19	19	16	19	29	3	33	57
국내외 기술기준에 대한 외국의 질의답변		158	140	156	90	42	72	153	137	219

II. FTA/TBT

우리나라는 '99년 한-칠레 FTA 협상을 시작으로 일본 및 싱가포르와의 FTA를 거쳐 '04년부터 동시다발적으로 FTA 체결을 추구하고 있다. 현재 미국, EU 등 주요 선진 경제권과의 협상을 완료한 상태이며 호주, 뉴질랜드 등 중소 경제권과의 협상을 진행 중이다. 그 결과, 칠레('04.4.1, 발효), 싱가포르('06.3.2, 발효), EFTA('06.9.1, 발효), 아세안('07.6.1, 상품·경제협력 발효) 등과 FTA 체결을 완료하였으며, 미국과는 '03.8월 FTA 추진 로드맵 마련을 시작으로 '07.6.30일 양측이 FTA 협정문안에 서명하였으

며 인도와는 '06.3월 1차 협상을 시작으로 12차에 걸친 공식협상을 통해 '08.9월 최종 타결하고 지난 '09.8.7일 정식 서명하였다. EU와는 '07.5월 제1차 협상을 시작으로 8차례의 협상 및 수차례의 회기간 협상을 통해 '09.8월 협상이 타결되었으며 현재 법률 검토중에 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일본(1차('03.12)~6차('04.11)), 캐나다(1차('05.07)~13차('08.03)), 멕시코(1차('07.12)~2차('08.06)), GCC(1차('08.06)~3차('09.07)), 페루(1차('09.03)~3차('09.07)), 호주(1차('09.05)~2차('09.08)), 뉴질랜드(1차('09.06)~2차('09.09))와 FTA 협상을 진행 중인데 일본의 경우 잠정적으로 중단된 상태이다.



FTA 협상/협정에서 기술표준은 중요분야 중 하나이다. FTA 핵심인 상품 자유화를 위해 일부 민감품목을 제외하고 대부분 관세가 철폐되기 때문에 비관세장벽 해소가 양측간 무역원활화를 위한 필수적인 요소가 된다. 대표적인 비관세분야로 TBT(무역기술장벽) 및 SPS(위생 및 식물검역조치)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공산품 수출국으로 FTA/TBT 협상에서 공세적인 입장으로 WTO plus 수준의 협정을 위해 별도의 분과를 구성하여 협상을 추진하고 있다.

FTA 기술표준분야 협상/협정에서 기술표준원은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 FTA 협상시 TBT 분과장수임 등 정부대표로 활동하고 협정이행시 기술표준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공식적인 창구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FTA TBT 분과에서는 기본적으로는 WTO/TBT 협정에 따라 상대국의 표준, 기술규정 및 적합성평가 제도 등이 상품교역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절차 및 방안에 대하여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나아가 기술규정 제·개정 과정에 대한 투명성 확보와 양국간 관련정보 교환을 위한 협의체 구성등의 제도적 장치 마련에도 힘쓰고 있다.



2.1 지금까지 실적

〈발효 또는 협상완료 FTA 현황〉

구분	칠레	싱가폴	EFTA	ASEAN	미국	인도
발효	'04.4.1	'06.3.2	'06.9.1	'07.6.1		
협정서명					'07.6.30	'09.8
협상종료						

가. 한-칠레 FTA

우리나라는 1998년 대외경제조정위원회에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추진하기로 하고, 첫 대상국으로 칠레를 선정하였다. 이후 1998년 APEC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칠레 양국은 FTA 추진에 합의하였으며 1999.12월부터 2002.10월까지 총 6차례의 협상을 거쳐 2003.2월 FTA 협정에 정식으로 서명하였다.

한-칠레 FTA 협정이 발효('04.4.1)됨에 따라 양국은 표준관련조치위원회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제1차 위원회('04.11.12, 서울) 및 제2차 위원회('05.09.08, 경주)를 거쳐 2007.11월에는 제3차 표준관련조치위원회가 개최되었다. 제3차 위원회에서는 자국의 규제관련 조치에 관한 설명, 시장 사후관리 및 TBT 이슈의 민간참여 방안 등에 대한 의견교환이 이루어졌다. 또한 양측은 EU의 환경규제 등 국제적인 이슈에 대해서도 공동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나. 한-싱가폴 FTA

우리나라는 '04.11.29일 한-싱 FTA 협상에 타결을 이루었다. 한-싱간 FTA에서는 국내 최초로 전기안전분야에서 국가간 상호인정협정(MRA)이 체결되었으며, 이것은 후속 협의를 거쳐 '08.2.1일에 발효되었다. 이에 따라서 한-싱간의 전기전자제품에 대한 안전시험인증기관을 상호인정 및 추가적인 TBT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한 한-싱 TBT 공동위원회를 양국간에 운영하고 있다. '09.2월 싱측 인증기관인 TUVSUDPSB를 국내 안전인증기관으로 등록하였으며, '09.9월 현재 우리측 안전인증기관인 산업기술



시험원, 전기전자시험연구원, 전자파연구원을 싱가포르 안전인증기관으로 등록하였다. 현재 양국은 상대국 인증기관을 자국의 안전인증기관으로 등록 후 1년 동안을 전환기간으로 정하고 동 기간내 10건 이내 인증건수에 합의하고 인증서에 대한 상호인정을 추진하고 있다.

다. 한-ASEAN FTA

아세안측은 '97년 이후 지속적으로 우리나라와 아세안간 FTA 체결을 희망하였으며, '04.11.30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2년내 타결을 목표로 FTA 협상을 개시하기로 선언하고, 2005.1월 1차 협상을 시작한 이후 '07.8.24일 최종 서명하였다. 이어 '07.6.1일 발효되었고 이후 우리원은 FTA TBT 분과 작업반 회의에 지속적으로 참여하여 왔다.

'07.4.12일 제1차 TBT/SPS 작업반 회의가 서울 외교통상부에서 개최된 이후, '08.10.27일~31일 한-아세안 경제협력회의 중 제24차 TBT/SPS 작업반 회의를 개최한 상태이다. 양측은 그 동안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Framework Agreement)에 정식으로 서명('05.12.13 한-아세안 정상회의)하였으며, '07.6.1일에는 한-아세안 FTA의 상품무역협정이 발효되었다. 또한 한-아세안 경제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아세안측은 TBT/SPS 분야에서 3가지 사업(TBT 1, SPS 2)을 제안한바, 기술표준원은 기술·표준 협력강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08.9.21일부터 7일간 아세안 10개국 21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동 교육은 아세안 10개국의 관계부처 공무원 및 시험연구기관의 직원으로 구성된 21명으로 전기전자(말레이시아, 베트남 등 10개국 12명) 및 산업재료(태국, 인도네시아 등 8개국 9명)의 두 분야로 교육하였다.

본 사업은 한-아세안 FTA가 발효되고 '08년 최초로 시행된 기술·표준분야의 경제협력사업으로, 전기전자 및 산업재료 분야 시험·분석 기술 등에 주안점을 두어 아세안측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교육으로 강의와 실습을 병행함으로써 기존 교육과 차별화되어, '09년 지속 사업으로 추진하고 교육기간을 연장할 예정이다



▶ 다음호에 계속